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5년 7월

선교편지 제 79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년전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디고스 지역에 선교의 큰 꿈을 품고 방문하였지만,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었던 까닭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저 눈 앞에 보이는 마띠 고등 학교에 무작정 들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쳇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생소한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기와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셔서, 교장 선생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디고스 학원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낮선 이방인이 조용한 시골 학교에 찾아 온 것만으로도 구경 거리가 되고, 뉴스가 되는 까닭에, 매주 토요일마다 어렵지 않게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한글을 가르치며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번씩 전교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만들어 성경 암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전교생에게 현지어로 된 성경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토요일 성경반 학생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근처에 있는 해변에 가서 음식을 해 먹으며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띠 고등학교는 500여명이나 되는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는 공립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실의 벽이나 문도 없는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낡은 칠판도 벽이 아닌 책상에 걸쳐 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학교 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약 일 년여에 걸쳐 교실 벽을 건축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학생들을 위한 교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비로서 교무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3년전에는 뉴욕 예일 교회의 단기 선교를 통하여 약 3,500여권의 책을 기증함으로써,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서관'을 갖춘 고등학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예일 교회의 헌신된 두 가정에서 저희 성경 공부반에 속한 35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인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4년 장학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35명의 학생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자녀들을 통하여 기대 가운데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마띠 고등학교가 이 지역의 대학 진학 명문(?) 고등학교로도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마띠 고등학교는 6년전과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는 학교로 변모했습니다. 10개의 현대식 새로운 교실이 세워졌고, 농구장 크기의 체육관도 세워 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고 받았던 교장 선생님은 능력을 인정받아 금년 초에 디고스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로 승진하여 전근을 갔고, 많은 교사들도 새롭게 충원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는 옛 모습 그대로인데, 가장 늦게 설립된 마띠 고등학교만이 짧은 시간에 학교와 학생들 모두 큰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디고스 지역에서 학원 사역을 최우선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 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갓 부화한 새끼 새들이 어미 새가 물어다 준 모이를 힘껏 목을 세워 받아 먹는 것과 같이, 아직 때문지 않은 어린 학생들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린 새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부모와 형제,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다른 학교에까지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 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어 주님 안에서 동행을 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이 학원 사역을 기반으로 작년부터 교회 건축을 시작하여, 마침내 금년 3월에 '디고스 예일 교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금년 초부터 디고스 예일 교회와 근접한 지역에 있는 '익핏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학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띠 고등학교 사역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는 익핏 고등학교 교장의 간곡한 요청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그동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여 미루어 오는 중에, 마침내 금년 초 디고스 예일 교회를 완공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띠 고등학교와 동일한 사역이지만, 그전과 달리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핏 고등학교는 설립이 된 지 이미 10년이 지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년전 익핏 고등학교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금년 6월에 익핏 고등학교에도 마침내 '도서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7월말 의료 선교를 앞두고 뉴욕 예일 교회에서 보내주신 약 1,500여권의 책들을 익핏 고등학교에 기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열악한 환경의 교실과 화장실은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는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가 될 정도로 초라합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선 가장 낙후된 2개의 교실과 화장실을 개조하는 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익핏 고등학교내에 작은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대표하는 구기종목은 농구입니다. TV에서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학교마다 남,녀를 불문하고 농구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핏 고등학교에는 아쉽게도 농구팀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별다른 시설이 필요없이 줄 하나만 걸면 경기를 할 수 있는 배구팀만이 매주 토요일마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토요일학교와 동일한 시간대에 배구팀 선수들이 학교에 나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있습니다. 7월말 예일 교회 단기 선교팀이 의료 선교를 위하여 익핏 지역을 방문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예일 교회의 Youth Group이 익핏 고등학교 배구팀과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익핏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관전하는 디고스 최초의 '국제 배구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익핏 고등학교 남자 배구팀은 디고스내의 고등학교 대항 배구 경기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밖에 이긴적이 없다고 엄살을 피우면서, 예일 교회 Youth Group과의 국제 경기를 앞두고 맹렬하게 연습 중입니다.

익핏 고등학교의 학원 선교에 작은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주의 사랑으로 학교 건물들이 보수가 되고 있고, 모두들 주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시작은 정말 미미하고 보잘 것 없지만,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뉴욕 예일 교회의 단기 선교로 인하여, 또한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익핏 지역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지역에 복음의 물결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작은 불꽃 하나가 / 복음 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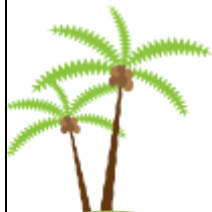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대학으로 진학하는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익핏 고등학교와 스파마스트 대학의 학원 사역을 위하여
5. 주중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Day Care Center)
6.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하여
7. 위클리프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하여
8.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9.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학업을 위하여
10.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